

IACS, 공통구조규칙 내년 4월 발효 정식 결정

신조선 선체강화 위해 강재사용량 4~5% 증가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은 최근 런던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조선과 벌크선의 공통구조규칙(CSR)을 만장일치로 채택, 2006년 4월1일부터 발효시키기로 정식 결정했다.

CSR 발효에 의해 신조선의 판두께가 강화되어 강재사용량이 평균 4~5%증가하고, 선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2006년 3월까지 유조선 및 벌크선의 신조발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IACS는 그리스가 이전에 제안한 발라스트탱크 도장 기준, 부식 예비후의 강화책도 수용했다.

발라스트탱크 도장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한 동내용 기준의 채택일 이후 계약선에 적용된다.

부식 예비후의 강화책은 종전 전체 길이 190미터 이상의 벌크선에 적용 예정이었던 판두께 요구를 전체 길이 150미터 이상으로 적용을 강화했다.

CSR는 발효일 이후에 건조계약을 맺는 신조선이 대상이다. 탱커기준은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선급(DNV)이, 벌크선기준은 일본선급(NK)를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7개선급이 각각 개발했다.

양그룹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작성한 것으로, 강판의 부식 진행도라고 하는 룰의 토대가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해운, 조선업

계에서는 양기준의 조화작업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IACS는 12월14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유조선, 벌크선 양규칙의 조화 작업의 장기 계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예상되는 신조발주 선형은 7만중량톤급의 파나마스형(panamax) 이하의 중형 벌크선이 중심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조선소들은 IMO의 연료탱크 이중화(2010년 8월 이후의 준공선에 적용)도 고려한 수주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CSR는 해난사고 다발로 인한 유럽의 여론에 안전강화 요구가 높아졌던 것과 더불어 그리스선사 등이 중고선의 유지보수 부족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구조강화를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각국의 조선업계는 "규칙이 줄속으로 제정되어 내용이 불명확해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난색을 표명했었다.

IMO / IACS NEWS

